

도내 뿌리기업 해외 시장 판로 확대

도·자동차융합기술원, 베트남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호원이피에스' 전기 카트 수출 투자 협약 체결 성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도내 뿌리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8개 기업으로 구성된 '베트남 뿌리산업 시장개척단'을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베트남으로 파견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현지의 특장차, 선박구조물 등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뿌리기업인 (주)호원이피에스는 21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MH Global Holdings, Capital Asset과 함께 8인승 전기 카트 수출을 위한 투자 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주)호원이피에스는 2020년 김제자유무역지역에 설립한 유틸리티 전기카트 전문 개발기업으로 8인승/11인승 롱 휠베이스 모델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특히 8인승 전기 카트는 국내 시장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호원이피에스는 먼저 5대의 8인승 전기카트를 수출한 후, 점진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호원이피에스는 전기카트를 공급하고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현지 파트너들은 인허가 절차와 운영, 인프라 구축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녹색 에너지 전환과 운송 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리조트, 테마파크,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기 카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다른 뿌리 기업들도 현지 뿌리산업 관련 기업을 방문해 용접구조물과 산업기계 등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주)호원이피에스 최성복 대표는 "기후 위기에 대비한 사업모델을 꾸준히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주) 원이 피에스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진출을 위해 준비 중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장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이번 베트남 수출 계약은 전북 뿌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성과다"며,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내 뿌리 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024 을지연습 상황보고 21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총무실에서 김판영 도지사가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듣고 동진강교 폭파상황에 따른 도상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도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 신설·운영... 50억원 이상 규모 사업의 모든 업무 체계적 관리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물 건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택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전문인력과 기술적 전문성의 부족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 부서 설치가 지속적

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공공건축팀은 5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의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까지의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공공건축팀은 도립국악원, 세계사에 비엔날레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대규모 건축사업의 공사와 설계 업무를 해당 부서에서 이관받아 정상적으로 수행 중이다.

또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전북연구원 건립,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 센터 건립, 도립미술관 증축 사업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설계, 공사,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매뉴얼'을 발간해 도청 전 부

서 및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공공건축물 건립 시 발생했던 어려움이 해소될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024 외국인 취업 박람회' 23일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성공적 추진 '기대' 10개 주요 기업 참여... 외국인 대상 채용설명회·상담부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 '2024 외국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며, 이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참여 기업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위한 추천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이 비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할 외국인에게 도시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구직자들은 비자 안내와 노무 상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인 업체와의 원활한 정보 제공과 취업 지원

이 기대된다.

박람회 참여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거나 도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며,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외국인 학생들도 참석 가능하다.

박람회에는 김제시와 인근 지역의 주요 기업 10곳이 참여하여 채용설명회와 상담 부스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31명의 외국인을 이 비자를 통해 추천했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정책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연구원, 지역학 교육 역량 강화 나서

도내 5개 종합대학과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북학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도내 종합대학들과 함께 지역학 교육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1일 전북자치도내 5개 종합대학(국립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과 전북학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 전북학연구센터 장세길 센터장,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임경택 교수, 전주대학교 한국어문창작학부 이웅욱 교수, 국립군산대 광장근 박물관 관장, 원광대학교 임승배 익산학연구소 소장, 우석대학교 조병중 교양대학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북연구원과 도내 5개교는 향후 연구 차 사업으로 전북학 교육사업 추진에

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종합대학들의 지역학 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연차적인 전북학 교육사업 추진과 상호 협력 △전북학 교육사업 수행 △전북학 교육사업에 필요한 자료 교류 등이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도내 대학의 구성원, 그중에서도 대학생들은 전북을 넘어 국가를 이끌어 나갈 후속세대들이다. 이들 후속세대에게 전북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역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원-대학 간 협력체계의 구축은 단기적으로는 지역학인 전북학의 진공, 장기적으로는 전북만의 매력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후속세대 양성을 통한 관계인구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제8회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 개최

내일까지 부안스포츠포크 일대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이하는 한국쌀전업농 전국회원대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스포츠포크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쌀전업농의 신뢰도를 높이고 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사)한국쌀전업농 중앙연맹회와 한국쌀전업농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한국농업신문이 주최하고, 한국쌀전업농 부안군연합회가 주관했다.

전국 회원대회 첫째 날에는 지역가요제 예선인 '나도 가수다'와 부안군 공인단체 선보이는 지역 특별공연, 부안군 주민과 함께하는 전야제 축하 공연이 진행됐다.

아울러, 전국 회원대회가 진행되는 3일간 상시로 쌀 요리 시연 및 시식,

부안군 특산물 홍보관 및 농기자재 전시관 등을 운영한다.

둘째 날에는 쌀에 대한 정보전달 쿼츠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과 부부 듀엣 가요제가 마련돼 있으며, 공식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에 제8회 한국쌀전업농 전국 회원대회 기념식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에는 대회 평가회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 진행된 전국 회원대회를 마무리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북농업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 농민들에게 소개하고 쌀 생산을 비롯한 우리 농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북의 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119청소년단, 안전체험캠프 성료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임실군 119안전체험관에서 전북119청소년단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캠프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119청소년단 산하 12개단의 179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를 조기에 인식 및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캠프에 참가한 단원들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직접 체험하는 '물놀이 안전체험', 일상 속 안전을 지킬 수 있

는 방법을 습득하는 '어린이 안전마술', 지진·태풍 등의 자연재난 대처법을 익히는 '재난안전체험'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처럼 교육·체험을 통해 청소년들 미래의 소방안전 선도 주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 연장: 2.5km • 폭: 9.0m (왕복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시 환산구 호자로 2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 개계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권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